

蘇聯 高等教育的 方法論과 特性

—蘇聯의 高等教育(4)—

金 東 圭

(高麗大 教育學科)

蘇聯의 高等教育

1. 蘇聯 學校制度的 발전과 전망
2. 蘇聯 高等教育的 理念과 政策變化
3. 蘇聯 高等教育的 교과 내용
4. 蘇聯 高等教育的 方法論과 特性
5. 蘇聯 學校教育的 이론가들

1. 教育方法論의 一般的 原則

소련의 학교 교육에 있어 그 기본적인 敎授—學習理論의 기초는 마르크스—엔겔스의 唯物論的 변증법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신스키(Ushinsky, K.D.) 연구자로 잘 알려진 메딘스키(Medynsky, E.N.)는 「마르크스주의 敎育學의 方法論」에서 方法論의 一般原則으로서 ‘演繹法과 敎育의 辨證法’을 논하고 있다. 그는 종래의 敎育 方法론자들이 단순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변증법을 敎育學에 적용한다고 말하면서도 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변증법적 방법은 대상의 구체적인 연구로부터 출발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변증법적 논리의 일반적 카테고리에서 주어진 과학의 특수한 카테고리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면 변증법적 논리의 일반적 카테고리에 의한 연역은 모두가 공허할 뿐이다”¹⁾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메딘스키의 관점은 결국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논리의 적용이 敎育學 方法론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영역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하나의 오류라고 보았고, 이것은 곧 經驗主義的 實證科學이라고 하겠다.

한편, 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注入에 둔 핀케비치(Pinkevich, A. P.)도 「소비에트 敎育學의 기초」(1929)에서 “科學으로서의 敎育學의 方法은 관찰과 질문지법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성립되지만, 수집된 자료의 평가는 마르크스주의적인 분석과 종합, 즉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敎育學 方法론과 평가 기준으로서의 변증법을 강조하고 있다.

學校理論의 한 사람인 대니로프(Danilov, A.)가 저술한 「敎授學」²⁾에서 밝히고 있는 敎育—學習의 일반 원리를 고찰한다.

1) 倉內史郎·鈴木秀一(譯), 『マルクス主義 敎育學方法論』, 明治圖書, 東京, 1978, pp.16~17.
 2) 矢川徳光(譯), 『敎授學(上)』, 明治圖書, 東京, 1974, pp.244~306.

1) 科學性的 原理

과학성의 원리란 학생들에게 현대 과학에 있어서 확실히 증명되는 命題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의 諸段階에서 별로 쓸모없는 개념들을 배워서 안 된다. 이 원리의 이론적 기초는 세계는 인식 가능하며 實踐에 의하여 검증된 인간의 지식은 세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映像을 제공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認識論에서 성립된다.

교육학과 심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오로지 과학적인 지식의 방법에서만 사물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방법론의 과학성은 학습의 제 1 조건인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 사물의 특징과 특성, 사물과 현상의 상호 연관을 인식해야만 된다. 이것이 제 2의 학습 조건이다.

예를 들면, 초급학교 제 2학년에서는 사물의 성질과 동작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학습한다. 이때에 이미 아동들이 이해하고 있는 주위의 현상들을 끌어내어 그 기존 개념과 새 개념을 연관지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관학습법은 다음 학년으로 바뀌면 학습물이 명사에서 형용사로 변화시켜야 한다.

제 3의 조건으로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사물이나 현상의 內的 法則性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現象의 발전 법칙도 동시에 터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이해 능력에 따라 학습 내용의 개념이 갖는 외부 조건, 장소와 시간, 변화 발전 과정, 낡은 것과 새로운 것과의 상호 대립성 등을 알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학년의 물리학 학습에서 分子運動說이나 에너지 보존과 변화 법칙 등을 학습할 때, 여러 가지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터 위에서 변화 운동 법칙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학습자로 하여금 공산주의 원리와 세계관을 인식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2) 系統性的 原理

계통성의 원리란 학문의 기본을 엄밀한 논리적 순서를 밟아 교수하고 학생들의 학습 노동을

順次的으로 지도하여 그들에게 지식·능력·태도에 일관성 있는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론을 배운 다음 실생활에 활용시키려면 이러한 계통성에 따라 지도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리는 일찍이 우신스키(Ushinsky, K.D.)가 주장한 것으로 “대상의 본질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체계만이 우리들의 지식을 지배하는 완전한 權能이다. 무질서하고 혼잡한 지식은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지식은 없고 체계만을 가진 머리는 마치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득 들어있는 상자로 꾸며진 상점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계통성이란 교과 내용의 논리적인 배열을 말한다. 그리고 順次性이란 학습자의 활동이 진행되는 순서인 것이다.

이러한 계통과 순차는 피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는 원리로 오늘날 서구 교육학에서 말하는 先修學習이나 準備度의 개념과 유사하다.

3) 理論과 實踐의 結合原理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지식을 각자의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응용하는 힘과 기술 그리고 습관을 갖도록 학교 교육의 방법론에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綜合技術學校의 형태이며 이론적으로는 마카렌코(Makarenko, A.S.)나 크롭스카야(Krupskaya, N.K.)에 의하여 일찍이 제시되었다.

개념을 실천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보다 철저한 인식과 보다 정확한 이해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 본다.

크롭스카야는 「교육과 教授法」(1946)이라는 저서에서 “생도들의 과제물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유도해야 한다. 생도들은 주위의 생활 경험에서 얻는 과제를 계획·작성한 뒤에 그것을 상호 비교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이론의 실천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數學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의 교수 내용도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과 결부된 지식이 되어야 하며, 생산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集團農場에서 생산 노동을 할 때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결합시켜 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생산 노동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학교의 학습 이해에 연결시킬 줄 알아야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7학년의 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농가의 가족’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담당 교과의 교사는 학습과 동시에 학생들을 집단 농장에 파견해야 한다. 작업반에 배정된 학생들은 농장 간부의 감독하에 부과된 작업을 하게 하고, 매주에 한번씩 간부는 학생들의 작업 상태를 학교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통 1~4학년 정도의 수준까지는 농장에 나가서 않고 각 학년별로 설치된 실험 농장 또는 실습지에서 야채나 사료 작물 실습으로 현장 실습을 대신한다.

4) 意識性과 積極性의 原理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체득하고 응용하여 사실과 현상을 조사하는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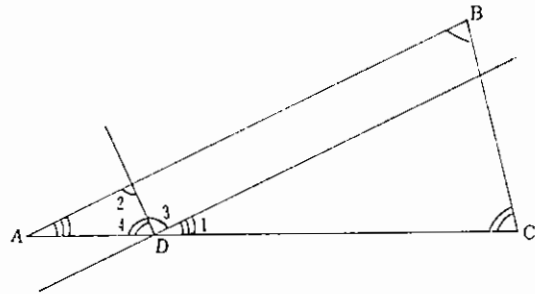
레닌은 공산주의 청년동맹 제3차 대회의 연설문에서 “습득된 지식의 전부가 자신의 의식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는 텅빈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意識性이란 사고 발달에 있어서 創造性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레닌은 이를 학습의 최고 단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식성에는 ①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욕적인 자세, ② 학습 내용의 원리와 언어에 의한 표현, ③ 학생들의 학습 노동과 창조적 성격, ④ 실천을 위한 의식적 응용과 의식적으로 습득된 지식의 신념화……등등으로 그 내용이 설명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확실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의식적인 지식의 이해와 습득으로 사물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서 제6학년 수학 시간에 선생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관한 定理를 설명하면서 “누가 교과서에 예시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보아라”는 숙제를 냈다고 할 때 어

〈표 1〉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관한 증명



※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임의의 한변에 D를 정하고 각각의 다른 두변에 평행하는 두개의 선분을 그으면, $\angle A = \angle 1$, $\angle B = \angle 2$, $\angle C = \angle 4$ 이므로 $\angle A + \angle B + \angle C = \angle 1 + \angle 2 + \angle 4$ 이며, 각각 그 수는 180° 이다.

는 학생이 〈표 1〉과 같이 해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독창성의 일면인 것이다.

5) 直觀性의 原理

직관성의 원리란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학습할 때 자신들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사물의 概念과 表象을 획득하도록 교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신스키(Ushinsky, K.D.)는 “形·色·音·單語의 초보적인 수업에 아동들이 될수록 모든 감각 기능과 지각 기능을 등원하게 하는 교육을 병행하면 아동들의 이해력이 증진되며 교사도 아동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고 그의 아동들을 위한 저서인 「國語」에서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관성의 원리는 일찍이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찌(Pestalozzi)에 있어서도 實物敎育의 중요성과 함께 勞作敎育의 방법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페스탈로찌는 교육 원리로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중의 하나가 ‘內的直觀의 原理’이다. 역시 독일의 교육학자 코메니우스(Comenius)가 개념한 直觀力이 플라톤(Platon)의 理性力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감각 교육에서 이성 교육으로 발전된다고 페스탈로찌는 설명하고 있다.

우신스키는 확고한 지식의 성립은 직관력에 의존한다고 강조하면서 직관 교수야말로 아동들의 사고력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소련의 교육학자들은 “서구의 자본주

의적 교육학자들도 우리와 같이 직관의 원리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그들의 주장은 지각 대상인 事物의 表面的인 측면만을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은 '아동들의 意識世界內에 숨어 있는 현실 세계의 反映物을 유도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덧붙인다.

“觀念이 없으면 事實도 없다”라는 파브로프(Pavlov, I.)의 명제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는 直觀的인 것과 抽象的인 것,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의 올바른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학습론의 본질도 각 학습 단계마다 구체성과 추상성이 잘 배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직관성의 원리에 입각한 학습 방법으로는 가령 植物學을 배울 경우, 자연 조건 가운데 있는 각종 식물을 학교 농장에서 현장 관찰하게 하거나 산으로 견학을 가게 함으로써 직관 교육이 가능하며, 또한 幾何의 수업에서 平行 四邊形을 배울 때는 교실의 창 틈을 예로 들어 지각과 감각을 동원할 수 있다.

6) 堅固性的 原理

견고성의 원리란 모든 교과와 기본적인 소재가 근본적으로 학습되어지면 학생들이 그것을 머리 속에서 再生하듯 기존 학습 개념을 이용하는 힘을 높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학습의 확실성(견고성)은 학습 내용의 體系 및 아동들의 지적 발달 수준과 흥미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앞서의 원리들—교수—학습의 과학성, 의식성, 계통성, 직관성, 이론과 실천의 결합성과 상호 밀접한 관계이다.

우신스키는 기계적인 암기법에 의한 학습도 지식의 견고성을 높이는 데 커다란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산권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反復學習法과 연결되는 이론적 근거라 하겠다.

대니로프(Danilov, A.)에 있어서도 反復은 곧 復習이라는 전제하에 새 학기부터는 아동들에게 학습을 시킬 때, 지난 학기의 학습 내용을 再生시켜 기존 개념과 새 개념을 잘 연결시켜야 학습의 효과가 높다고 제시되고 있다.

7) 相應性的 原理

상응성의 원리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피교육자의 발달 단계에 상응하도록 교재와 방법론을 선택해야 된다는 원리인데, 이는 아동들에게 적당한 학습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학습을 일종의 정신 집중에 따르는 적절한 긴장 상태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교과 내용의 難易度가 학습자의 지적 수준과 생리적 발달 수준에 알맞도록 선택되어야 하겠다.

8) 個別的인 接近의 原理

개별적인 접근의 원리란 학습을 모든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고 동시에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개인적인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개별 지도를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학교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집단 작업에 대한 이해와 집단의 명예를 존중하도록 집단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자기의 맡은 책임 분담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서도 집단 의식이 고양된다. 그리하여 지도 교사는 집단 작업의 의미와 기능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지도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효과적인 학습에 임해야 한다.

크롭스카야는 “아동들의 인격은 집단내에서 보다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발달하므로 집단은 아동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개별적인 인격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로써 집단주의와 함께 개별주의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한편, 마카렌코도 “개개인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의 원리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인격이 우리의 머리 속에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마치 완두콩처럼 한 울타리(집단) 안에 한알 한알(개인)이 선명하게(개성) 인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실제의 수업 과정에서 지도 교사가 개별적인 접근의 원리를 적용하는 예를 든다면, 우선 학습 전체로서의 集團目標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능력과 소질을 하나하나 관찰하여 개별 지도에 임하는 방법이 있다. 즉, ① 注意의 발달, ② 수업에 임하는 태도, ③ 교과에 대한 자세, ④ 직관적 교재나 언어적 교재를 지각하는 속도와 정확성, ⑤ 교재의 이해와 사고력, ⑥ 지식의 성격에 대한 지각 능력 등등에 교사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8 가지의 대니로프에 의한 교수-학습의 원리와 함께 오늘날 소련의 교육학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는 애국 정신의 高揚法, 조직적 課外活動을 통한 사회학습법, 모범학습법 등이 있기도 하다.

2. 思想(이데올로기) 教育의 內容과 方法論

교육을 계급 투쟁 형태로 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개념한 메딘스키(Medinsky, E. N.)는 教育의 定義에서 “교육은 생득적인 생물학적 성질 또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성질을 발달(계발)시킬 목적으로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견해나, 아니면 인간의 사회적 형성(社會化)의 全過程이 교육이라는 公式은 극히 부르조아 교육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면서 “우리들이 제창하는 교육의 정의는 형식적인 뜻이 아니고 커다란 실천적 의미가 있다. 우선 이러한 부르조아 교육학의 허위를 폭로함으로써 계급 투쟁의 목적에 봉사한다. 교육의 주요한 특징을 계급 투쟁의 도구 및 형태라고 규정한 이상 우리들은 그에 따라 어떠한 영역에서도 교육학의 전 분야에 걸쳐 계급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최후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體育에 있어서도, 性 教育에 있어서도, 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讀·算·算의 기초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각 교과의 교수 방법론에 있어서도 계급 투쟁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³⁾

이처럼 학교 교육의 全過程과 全內容을 공산

주의적 계급 혁명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전제된 소련의 학교 교육론에서는 자연히 全教科의 內容과 方法論도 계급 투쟁의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성립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 방법론에 의거하여 이러한 사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로 알아 본다.

1) 校內外 組織을 통한 투쟁 정신과 집단 정신 함양의 教育方法

지금까지 소련에서는 ‘10월혁명단(The Octobrist)’과 ‘少年개척단(The Pioneer)’, ‘공산당청년동맹(The Komsomol)’의 세 가지가 학교 내·외의 정규적인 조직체이다.

‘10월혁명단’이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기념으로 조직된 단체의 이름으로서 주로 국민학교 과정에서 지원제로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가 회원이 되며 목적은 집단주의 정신과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은 학습의 자치 운영, 교내·외의 노력 봉사, 노동력 제공을 하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어린 별’이라는 이름의 소집단이 구성되어 정기적인 집회를 갖고 레닌의 학습, 경축 행사의 주도, 전국 집회의 참가로 활동하고 있다. 1924년에 결성된 이 조직은 엄격한 5개의 규칙⁴⁾ 아래 장차 소년 개척 단원의 후보자로서 모범 생활을 하게 한다.

‘소년개척단’은 1922년에 창설된 것으로 10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소년·소녀의 최대 조직체이다. 주로 상급의 조직체인 콤소몰로부터 임무와 역할을 지도받게 된다.

1976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전국 ‘소년개척단 지도자 대회’에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모두가 개척단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레닌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개척단의 조직 아래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노동정신으로, 도덕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레닌의 유산을 이어받아 싸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3) 倉內史郎·鈴木秀一, 전거서, pp.170~171.

4) ① 소년개척단의 예비군, ② 애교심과 경로 사상, ③ 노동애, ④ 정직과 용기, ⑤ 근면성.

그들에게는 항상 조국애와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고 학업과 품행이 단정해야 하는 조건이 강조되고 있고, 조직 구성은 각 학년별의 少隊와 그 아래의 반별로 결성된 分隊가 있고 학교 단위로는 聯隊의 이름을 쓰고 있는 내용이다. 그들의 행동 규범(守則)으로는 全體가 걸정한 사항은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하며 언제나 숙선 수범하고 간부를 존경하며 부과된 임무는 완수하고 남의 결점은 고쳐주고 도와주라는 내용이 다.

‘공산당청년동맹’은 1918년 10월에 창설된 공산당의 예비군적 청년 조직체이다.

소련 공산당은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을 청년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수단, 공산주의 정신과 가치관의 고취, 공산당원의 양성에 두고 있다. 15세부터 28세에 이르는 청년들을 회원 자격으로 하며, 앞서의 2개 조직과 함께 소비에트 시민의 3世대를 뜻하는 3각형의 붉은 넥타이를 회원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공산당과 콤소몰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콤소몰이 당의 지시와 통제를 직접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콤소몰은 레닌의 노선에 입각하여 당으로부터 어떻게 생활하고 일하며 투쟁하고 승리할 것인가의 방법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말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식적인 3개의 조직체 이외에도 ‘붉은 봉사단(The Red Scout)’이라는 학생 조직이 있다. 이들의 임무와 활동은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행방 불명된 戰死者들의 유해나 유적 탐사,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전쟁 기념관 방문, 전적지 순례, 전몰 유가족의 위로 방문 등등의 校外活動을 통하여 소련 역사를 배우고 소련 혁명사를 찬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게 된다.

끝으로 한 가지 특별한 사상교육은 소년 계적 단원과 콤소몰 단원과의 합동으로 매년 하계 방학중에 실시하는 특수 군사 훈련이다. 이 행사는 거국적인 것으로 實戰을 방불케 하는 모의 전투 계획을 수립하고 이름을 ‘빈게 작전’ 또는 ‘독수리 작전’으로 붙이고 있다. 훈련의 목적은 집

단 조직 속에서 우에 정신의 함양과 조국애, 혁명 정신, 혁명 정신의 고양, 체력 단련, 군사 기초 지식의 습득에 두고 있다.

2) 전쟁 영웅들을 모델로 한 愛國主義 고취 學習方法

소련의 역사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을 ‘大祖國 戰爭(The Great Patriotic War)’이라고 부르면서 시민과 군인 약 2,000만 명이 살해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와 참상을 그들은 후세들의 조국애와 사회주의적 계급혁명 정신의 高調, 자본주의 사회를 제국주의로 매도하면서 비판하는 教材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당시 소련과의 友軍關係인 연합국이었기에 그렇지 만일 적대국인 독일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은 자본주의 비판에서 미국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현재의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애국주의 고취를 위한 비난 대상국이 미국으로 되어 있음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3) 초등학교에서의 國防과 愛國主義 敎育 方法論⁵⁾

주로 국어과나 사회(역사)과의 교과 내용은 조국과 레닌, 인민군, 전쟁 영웅들, 용감한 어린이들의 이야기 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본문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제1학년에서 3학년의 국어과 독본은 소련군, 10월 혁명, 자랑스런 소련 국민과 우리의 조국 역사 등의 세 가지 대단원으로 짜여져 있다.

교과서에 묘사된 전쟁 영웅들 중에는 빨치산 소녀로서 유명한 조야 코스모데미안스카야(Zoya Kosmodemyanskaya)의 영웅적인 공적이 있다. 그녀는 1941년에 독일 나치의 비탈 경찰인 게쉬타포에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리고 불타는 비행기를 끝까지 몰고 가서 적의 트럭 위에서 폭발시켰다는 조종사 니콜라이 가스텔로(Nikolai Gastello)의 이야기 또는 자기의 소대를 집중 사

5) Zajda, J., Education in the USSR, Pergamon Press, Oxford, 1980, pp.206~214.

격하는 자동 화기에 멘몸으로 덮쳐 산화한 알렉산더 매트로스프(Alexander Matrosov)의 용감한 이야기가 나열되고 있다.

4) 軍事教育과 訓練을 통한 혁명 투쟁 정신의 고취 學習法

제9학년이 시작되면 「군사훈련 입문」이라는 교과서에 의하여 주당 2시간씩 학습하게 된다.

교련 교사는 제대 장병이거나 또는 군사 훈련의 초보 교관이다. 매 학년이 끝나는 5월에는 5일간에 걸친 집중 兵營訓練 30시간을 받고 있다. 훈련 기간중에는 각종의 소형 자동 소총 조작법, 사격법을 익히며 상호 경쟁을 시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우승 배지와 상장이 주어진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주둔한 부대를 견학도 하고, 반대로 그곳의 군인들이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태닌의 초상화를 배포하면서 용감한 군인 정신과 조국을 위한 영광된 전투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된다.

소련의 교육 당국에서는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도덕교육이나 인격교육에 있어서 전쟁 영웅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더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소련의 학생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인생관으로 전쟁 영웅들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3. 蘇聯 學校教育에서의 教授—學習 方法論의 特性

소련의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관과 국가관에 입각하여 당과 국가에 봉사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 최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개인적 자유나 개인 차에 따르는 개별 지도 학습법보다는 전체적인 단결과 집단 지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일찍이 마카렌코나 크롭스카야에 의하여 개발된 集團主義 教育論에 근거한 학습 지도법은 발달되어 있음이 하나의 특징인 것이다. 마카렌코의 「集團主義와 教育學」이라는 저서에 의하면 그가 직접 경영했던 ‘제르진스키(Zerginski) 記念 콤무나(Comuna)’의 체험을 토대로 어떠한

理論에 앞선 實踐을 강조하고 있고 개인적 자유에 앞선 집단적(전체적)인 통솔과 평등을 교육 방법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동들의 시기부터 교육을 ‘軍隊化’의 형식 속에 집어 넣고 隊長이니 班長이니 하는 조직 명칭을 붙여서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그의 이론과 구상이 그대로 소련의 학교 사회에서 적용되었고 실천되어 온 교육 방법상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크롭스카야의 「幼兒教育과 集團主義」라는 저서에서도 명백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그녀는 유아기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집단 생활의 습관을 주입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특징은 綜合技術教育의 발달에 따른 학습 환경에 있어서의 勞動의 강조이다.

이러한 교육론의 주창자는 앞서의 마카렌코나 크롭스카야의 이론에서도 중심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금세기초의 소련의 교육학자 샤츠키(Shatsky, S. : 1878~1934)에 의하여 勞動學校의 개념이 재강조되었다. 그는 정규 교과목 이외에 과외 활동으로 클럽을 만들어 ‘놀이와 작업’이라는 학습 원리에서 아동들에게 노동의 습관을 배양하도록 꾀하였다. 또한 육체 노동과 놀이, 예능 활동, 지식 학습, 사회적 집단 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방법을 시도하였다. 크롭스카야가 婦人勞動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면 샤츠키는 초등과정에서의 노작교육에 정열을 쏟았다.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주장과 이론에 근거하여 소련의 학교 교육에서 종합 기술 학교의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끝으로의 특징이라면, 사회주의 교육학은 그 추구하는 도달점이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요건 때문에 방법론의 획일성 또는 단일성이라 하겠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 방법은 개인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가치 추구(교육 목표)라는 기본 전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접근법(교육 방법)이며 이것을 개인 차에 따르는 학습 지도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므로 교수—학습법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유자본주의 학교 사회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공산권 국가들의 학교 교육론은 극히 간결하고 개괄적이라 하겠다. 개인은 없고 전체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 차란 문제 제기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 학급의 생도 수가 10 명이든지 100 명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1명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⁶⁾

4. 몇 가지의 問題와 展望

교수-학습 이론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교육학이라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서 오늘날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해석해 왔던 집단주의 교육론의 원칙에 입각한 평등 개념은 결국 자유자본주의 국가들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難題의 하나인 個人差 問題를 일부러 度外視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순전히 공산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엄연한 현실적 사실을 비현실적이라고 부정한 연유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현실의 모순을 인정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전국적 규모로 이른바 天才教育에 커다란 관심을 갖기에 이르

렀고 개인 차 문제도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소련에서는 1960년부터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數學 올림픽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특히 기초과학에 교과과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藝體能系의 특수 학교는 유치원의 과정에서부터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物理·數學·化學 분야에서의 특수 재능을 가진 아동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각 분야의 권위자가 개별 교육을 시키고 있거나, 科學아카데미의 시설과 연구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특혜도 부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중국에서도 重點學校라는 이름의 영재 학교가 있다. 북한의 학교 현실에서도 최우등반이라는 이름의 전국 학술 경연 대회를 열고 있고 藝體能系의 영재교육은 소련의 제도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평등 원리에 기초한 계급 개념에서는 모순되는 자유 원리에 기초한 비계급적 개인주의 문제가 대두되어, 오늘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사회주의 국가가 안고 있는 자체 모순과 그 한계성을 읽게 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終焉을 예고하는 일단의 현상이기도 하다. *

6) 1973년, 일단의 미국 교육 시찰단이 중국의 어느 국민학교의 수업 현장을 참관했을 때, 방문 단원 중 한 사람이 교사에게 “선생님은 개인 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개인 차가 무슨 말이요?”라고 대답할 만큼 개인 차 문제를 전혀 도외시키고 있었다는 실제의 예가 있다. W. Kessen 著, (金東圭 역), 『中共의 가정·학교·사회』에서 참조.